

Abstract Type : Poster Exhibition
Abstract Submission No. : F-008572

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에서 간이식 후 재음주가 미치는 영향

SeungHeui Hong¹, Eun Jin Kang¹, Yunmi Lee¹

¹Department of Organ Transplant Center, Samsung Medical Center, Republic of Korea

Introduction: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통계에 의하면 바이러스성 간질환으로 인한 간이식은 줄어드는 반면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인한 간이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. 그러나 간이식 후에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들의 재음주가 문제가 되고 있어 재음주율과 재음주가 이식 후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.

Methods: MELD 시스템으로 변경된 2016년 6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까지 본원에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271명 중 6개월 이상 경과한 환자 (238)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.

Results: 본 연구 대상자는 총 238명이었으며, 뇌사이식은 92명 (38.7%), 생체이식은 146명 (61.3%)으로 수술 전 중위수 MELD score는 25점 (6-40)이고 뇌사이식은 37점, 생체이식은 17.8점이었다. 중위수 나이는 53세 (27-69세)였고 남자 162명 (68.1%), 여자 76명 (31.9%)이었다. 간이식 후 DDLT 환자들의 재음주율은 44.6%로 LDLT 환자의 재음주율 21.9%보다 훨씬 높았다. ($P<0.001$). LDLT에서 donor와 recipient의 관계에 따른 재음주율에는 차이가 없었고 간이식 후 재음주가 환자의 생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($P=0.177$). 오히려 면역억제제 복용의 순응도가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어서 ($P=0.011$) 재음주 환자에서 면역억제제 순응도가 좋을수록 면역억제제 순응도가 나쁜 환자들에 비해 환자의 생존율이 높았다 ($P=0.021$)

Conclusion: 이번 연구는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에서 간이식 후 재음주율은 높지만 면역억제제 복용을 잘 하는 환자들에게서는 생존율에 악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재음주를 낮추기 위한 교육 뿐만 아니라 면역억제제 복용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육도 함께 해야 함을 보여준다.